

차례

성 김대건 천주교회 노인회	2
성모회	5
윙프레아	9
꾸르실리스파 여러분	12
성서와 함께하는 삶	12

성 김대건 천주교회 노인회

요아킴회장 조병국 바오로

안나회장 김영희 엘리자벳

1984년 San Leandro에 위치한 Our Lady of Good Church에서 East Bay 지역 신자 61명이 모여 첫 말씀의 전례를 가진 지 벌써 25주년을 맞이하고 있다. 당시 창립의 주역들이 대부분 40대였는데 모두가 칠십노인이 되었다. 지난날을 되돌아 보고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계획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988년에 노인사목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제 2대 주임신부님이신 임홍지 알로이스요 신부님께서 곽우영 카타리나 자매님과 김아레 카타리나 자매님과 함께 여성노인회(65세 이상)를 창설하기로 하고 명칭을 “안나회”라고 하여 초대회장에 황세복 안나 자매님을 임명하였다. 남성 노인회는 2년 후인 1990년에 초대회장으로 채인국 다니엘 형제님을 임명하였다.

‘신심’, ‘친교’, ‘봉사’를 목적으로 하여 신앙강좌, 건강강좌, 춘추야유회, 오락회 등을 개최하여 노인들의 신앙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다.

노인회 단체의 목적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노인들의 신심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인간 생명의 연장으로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우리 본당에서도 노인회 회원이 226명이고(2008년 집계) 미사 참석자의 약 50%를 차지한다. 세상 사람들은 노인들을 사라져가는 인생의 황혼기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에게 노인이 된다는 것은 긴 인생 여정에서 추수하는 결실의 계절이고 영원한 생명의 여명기라고 생각한다. 크리스천

노인들에게는 꿈이 있다. 산다는 것은 이상과 현실의 대화이고, 산다는 것은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꿈이 없다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다. 신앙적 측면에서 노년기가 되면 생명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밟게된다. 이를 복음화의 기회로 삼아 노인들이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둘째, 노인들의 친교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청년에게는 진보와 혁신하는 젊음이 있고 노인에게는 경험을 통한 경륜이 있다. 모든 역사는 젊은이의 진보와 노인들의 보수가 투쟁하기도 하고 조화를 이루기도 하며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과학의 발달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상을 급변하게 하고 있다. 이 급변하는 세상에 순응하여 살아가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현기증일 날 정도이다.(컴퓨터, 통신기기) 사회적으로도 이민 1세대인 노인들은 일제의 압박과 6.25 동란을 겪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세대이며, 유교사상 속에서 굶주리며 소 팔고, 논 팔아 자식을 공부시켜 노후에 자식과 함께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소원이었다. 자식은 나름대로 성공하여 미국에 이민을 왔고 평등과 개인주의 사회인 미국인이 되었다. 대부분 이민 1세대인 노인들은 노후재정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 다행히 미국 정부의 사회복지 혜택으로 정부 아파트에 살지만 어렵고 외롭게 살아간다. 문화면에서도 이민 1세대인 노인들은 이질적인 문화의 충격과 언어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서문화의 차이로 가치관의 혼돈을 겪고 있다. 또한 많은 노인들이 현대병인 성인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성인병은 전염병과 달리 의사의 치료보다 자가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의사들과 의사소통도 어렵고 자가치료 설명서도 읽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적 기술을 가진 젊은층을 발굴하여 노인 프로그램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한다.(예: 컴퓨터 강의, 건강진료 및 강의)

세째, 노인들의 봉사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노인회에서는 신체적인 한계성 때문에 힘든 일은 하지 못하고 성당 주변 청소나 가난한 이들을 위한 빈센치오회에 대한 협조, 본당 장학금, 새신자들에 대한 협조 등을 해왔다. 앞으로 노인회가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봉사는 신앙의 대물림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가장 중요한 평신도 사도직 단체인 본당 레지오마리예를 보면 거의가 노인들이다. 40대, 50대도 거의 없고 30대, 20대 단원은 전혀 없다. 우리 노인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그리고 직접적 활동으로 본당 모든 단체에 젊은 피를 수혈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성 모 회

성모회장 송인숙 수산나 (5월 2009)

1984년 9월 16일 San Leandro에 위치한 “Our Lady Good Church”에서 East Bay 지역 신자 61명으로 첫 말씀의 전례를 시작하여 동년 10월 7일 성 김대건 천주교회 창립미사가 있었습니다. 성모회는 본당 역사와 함께 해 오면서 나자렛에서 성가정을 이루시고 나자렛 공동체를 겸손과 순명으로 이끌어 가신 천주의 어머니시며,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동정마리아를 우리 성모회의 주보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생활화하며 특별히 성모님을 공경하고 그 덕행을 본받아 자신 및 가정의 성화와 본당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 및 이웃돕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가정의 어머니같이 본당 발전을 위하여 모든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서로의 신앙을 격려하고 친목을 도모하면서 모든 행사가 원활히 되도록 하며 하느님 안에서 기쁘게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왔습니다.

이제 본당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날을 되돌아 보고 성찰하며 성모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내일을 계획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당 주임신부님이시던 김동환 라우렌시오 신부님께서 1985년 권선 글라라 자매님을 초대성모회장으로 임명하여 성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모회원 자격은 65세 미만의 본당 자매님(예비신자 포함)으로서 현재는 약 50 여명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와 기부금, 바자회의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성모회는 모든 행사와 미사후의

친교를 위하여 다과 봉사를 하여 왔고 1년에 2-3회 기금모금을 위하여 바자회를 개최했습니다.(김치, 과일 등) 한국의 소년소녀가장, 곤경에 처한 본당 교우, 빈센치오회 그리고 본당 단체(노인회, 한국학교, 장학금, 중고교 캠프 등)의 사업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연중 명절(구정과 추석)에는 차례상을 차려서 우리의 전통을 기리며 전 신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성모회는 부엌 안의 육체적인 노력 봉사에만 치중하여 왔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르타의 봉사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봉사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성모회 봉사자들의 영성생활의 기초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묶어 완전하게 합니다.’(골로사이 3장 14절) 봉사자들은 사랑을 기초로 하여 봉사직을 수행하고, 봉사직 수행을 통해 자신을 완전히 봉헌해야 하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래에 있는 마음가짐이 봉사자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치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누구든지 나에게서 떠나지 않고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5,5) 이처럼 봉사의 풍요한 결실은 분명 그리스도와의 생생한 일치에 달려 있습니다.

주임 신부님과 지도 수녀님과의 일치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수고하고,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그리고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데살로니카전서 5,12-13)라고 전하면서 일치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당 주임 신부님과 지도 수녀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들과 일치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성모회원 상호간의 일치

또한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 17, 11)라는 말씀과 같이 성모회원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일치하여 기쁘고 즐거운 봉사가 되어야겠습니다.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본당신부님 그리고 성모회 지도 수녀님에게 순종으로 일치하면서 성모회원 상호간에 사랑으로 일치하는 봉사자가 되기 위하여 본당 성경 공부반과 각종 피정에 성모회원 여러분은 반드시 참석하여야겠습니다. 또한 성모회원의 영성생활을 함양하기 위해서 자체 피정을 활성화하여 봉사의 풍요한 결실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역대 성모회장 명단

	성명	세례명	기간
1	권 선	글라라	1985 - 86
2	김숙자	벨라뎃다	1987 - 87
3	박호영	헬레나	1988 - 89
4	양태숙	루시아	1990
5	곽우영	카타리나	1991
6	김정자	빅토리아	1992 - 93
7	김영희	엘라자벳	1994 - 95
8	이명자	마리아	1996 - 98
9	이혜란	세실리아	1999

	성명	세례명	기간
10	손정옥	리디아	2000
11	권 선	글라라	2001
12	김 옥	발바라	2002
13	조상희	마리아	2003
14	안영애	사라	2004
15	조난순	안젤라	2005
16	장진원	베로니카	2006
17	정경희	카타리나	2007
18	송인숙	수산나	2008 - 현임

울뜨레야 (ULTREYA)

울뜨레야(ULTREYA)라는 말은 스페인어로서 전진하다 또는 여기까지 오라 즉,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순례의 여정에서' 낙오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뜻이다.

울뜨레야의 목적은 3일간의 꾸르실료에서 얻은 결실이 꾸르실료 이후의 토양에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꾸리실리스따들에게 크리스천 삶의 요소인 신심, 공부, 활동을 독려하고 지속적인 회심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성적으로 더욱 쇄신되어 주위 환경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생활하여 환경(사람들의 생활방식과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이상들, 가치관들, 그리고 상황들의 총체)복음화에 이바지하고 항구적인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게 하기 위함이다.

울뜨레야는 꾸르실료 주말을 체험한 꾸리실리스따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서 꾸르실료적 이상을 같이 하는 형제 자매(소그룹 즉, 그룹 재회)들이 이상, 순종, 사랑의 정신으로 복음화를 위한 사도직 활동의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성찰하면서, 그 성공을 위하여 서로 격려하고 필요한 도움을 주며 함께 기도함으로써 참된 크리스천 생활의 영양분을 섭취하여 성인이 되고 평신도 사도가 되는 생활의 활력소를 다시 얻기 위한 본당 공동체 안의 영성 단체이며, 그것은 크리스천 신앙을 함께 나누고 생활하는 각각의 그룹 재회를 확대한 재회이며 완성이다.

그러므로 울뜨레야는 그룹 재회를 하고 있는 소그룹들이 한달에 한번

정도 큰 단위로 만나 '크리스천의 기본이 되는 것'과 '참 크리스천의 생활'의 영성 성장을 촉진하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한 생활담을 서로 나눔으로써 크리스천 생활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한 영성적, 교리적, 실천적, 사도적인 형성을 할 뿐 아니라, 복음화를 위한 사도적 열정으로 서로가 낙오하지 않도록 격려하며 전진을 다짐한다.

울뜨레야는 앞에서 언급한 꾸르실료 운동의 3단계 즉, 이전, 주말, 이후, 그 중 주말은 꾸르실료 사무국과 봉사자 학교에서 담당하지만, 이전과 이후는 전적으로 각 본당에 소속되어 있는 꾸르실리스따들이 담당해야 할 몫이다. 환경 복음화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꾸르실료 운동은 이전의 단계에서 환경을 연구하여 우선적으로 복음화 되어야 할 환경을 선정하는 일이 중요하며, 선정된 환경 중에서 복음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꾸르실료 주말에 참가할 후보자를 잘 찾아 주말의 체험을 하기 전에 영적 준비를 시켜야 한다.

또한 이후의 준비는 후보자가 꾸르실료를 체험하고 본당에 돌아오면 그로 하여금 신앙의 성숙과 크리스천적인 헌신 및 세상 안에서의 복음화에 정진할 수 있도록 그룹 재회와 울뜨레야 참석 등을 도와줄 계획을 미리 세우는 일이다.

본당 내에서 꾸르실리스따들의 그룹이 수행해야 할 일들은 전부가 선정된 환경을 복음화하기 위한 목적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울뜨레아 역대 간사

1994 - 1995	제 1 대	지택근 도밍고
1996 - 1997	제 2 대	이건용 요셉
1998 - 1999	제 3 대	조현대 요한
2000 - 2000	제 4 대	강오철 가브리엘
2001 - 2001	제 5 대	이만 알로이시오
2002 - 2002	제 6 대	조현대 요한
2003 - 2005	제 7 대	채성일 토마스
2006 - 2006	제 8 대	육승주 아오스딩
2007 - 2009	제 9 대	조상희 마리아

꾸르실리스파 여러분께

조현대 요한

꾸르실리스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꾸르실료라고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온세상이 잠든 새벽녘에 은은히 들려오는 A면-동이 뜬니다. 잠-을 깨세요. 동-녘 하늘에 Y@ 천상의 천사들 노래입니다. 또 뜨거운 6월 햇빛 속에서 양팔기도를 하던 모습들이 너리를 스쳐 갑니다. 신부님들과 봉사자들, 그리고 참가자들이 함께 일심동체가 되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우정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하던 일들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감동과 감격은 뒀안길로 사라지고 잊어버리거나 방관자로서 살고 있는 많은 꾸르실리스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봉사했던 사람으로서 한 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서중부(북가주) 꾸르실료가 도입된 것은 1981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수원교구 사무국 지도신부 한중훈 신부님과 지도 신부단 네 분과 박창웅 회장 등 6명의 꾸르실리스파들의 지도로 샌프란시스코 성당에서 37명의 꾸르실리스파들이 탄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후속 조치의 부족으로 13년 간 동면 상태에 있다가 허동선 신부님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1994년 9월 1일에 허동선 신부님을 지도신부님으로 주간에 전덕천 안드레아를 중심으로 서중부 꾸르실료 사무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타사무국(서울대교구, 서남부교구)의 도움으로 남성 2차, 3차, 4차, 여성 1차, 2차, 3차의 꾸르실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이철수 지도 신부님께서 우리 자체의 힘으로 꾸르실료를 실시하고자 1999년 10월 6일에 봉사자 학교를 설립하고 남성 6차, 7차, 8차, 여성 4차, 5차, 6차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약 600 여명의 꾸르실리스파들이 탄생되었습니다. 전입반 타고구 출신 약 100 여명으로 도합 약 700 여명의 꾸르실리스파들이 가정과 사회, 교회공동체에서 환경복음화를 위하여 나름대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박 4일의 꾸르실료에 집중하느라 다른 부분 즉 꾸르실료 전과 꾸르실료 이후에 대하여는 소홀히 한 점이 많았습니다. 꾸르실료 운동의 기본사상에는 “3박 4일의 꾸르실료는 팀회합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꾸르실료는 꾸르실료 이후를 위하여 존재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꾸르실료 이후는 개인 성화를 위하여 팀회합이 있고 공동체성화를 위하여 울뜨레야가 있습니다. 꾸르실료 이후의 기본 목적은 “꾸르실료를 생활로 경험한 각 개인의 회개를 새롭게 하고 촉진시키고 완성하는 것이다.”(기본사상 461항)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꾸르실리스파들이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들 자신의 독특한 위치를 찾도록 하는 것이며 꾸르실료 이후, 그들에게 그들의 환경 속에서 크리스찬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수단이 바로 팀회합이고 울뜨레야입니다.

그리하여 꾸르실리스파들이 재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주제를 ‘회심’으로 정해 2005년 회심 제1차 재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처음 실시하는 교육이어서 우려도 하였으나 봉사자들이 하나하나 빈틈없이 챙기는 것을 보면

서 준비하여 주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꾸르실료와 꾸르실료 재교육의 목적이 개인성화를 통한 공동체성화라면 그 수단인 팀회합과 울뜨레야의 활성화는 꾸르실료 운동에서 필수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꾸르실료 이전에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꾸르실료 이기적인 전체를 이루고 있어서 서로 고유한 목표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기본사상 201 항)

꾸르실료 이전은 복음화를 필요로 하는 환경연구와 그 환경에서 참가자를 찾아내고 영적, 물질, 인적 요소를 조정하고 그들의 꾸르실료 이후로 도와 줄 계획을 세우는 일입니다. 꾸르실료 운동의 목적은 일반 보편교회의 목적과 똑같은 세상의 복음화이고 교회운동의 일부이기에 철저한 교회 의식 속에서 수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신심단체와 다른 점은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그 삶 속에서 삶의 기준을 발견하고 그 원리를 구성해서 실천하는 운동입니다. 삶의 기준을 발견하여야 하기 때문에 창조적이어야 하고 창조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자율성과 능동성을 요구합니다. 자율성과 능동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전하고 진화합니다. 그러기에 역동적입니다.

과학의 발달과 정보통신의 발달은 세상을 급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순응해서 내 가정의 징표는 무엇인가? 내 직장, 나의 공동체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를 찾아내어 크리스찬 삶 속으로 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꾸르실료 운동을 통해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평신도들을 자율

적이고 능동적인 평신도 사도직을 수행하게 함으로서 교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평신도들의 역사적 사명이고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꾸르실료 운동에 봉사하면서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실감하게 되고 현실의 한계성 속에서 고민도 하였고 좌절하기도 하였습니다.

꾸르실료 창시자들도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서 이 운동을 시작하였고 현실 속에 가능한 방법으로 문제점을 찾아내고 꾸르실료의 고유한 방법 (귀납적 방법)으로 꾸르실료 운동을 실천해 왔습니다. 현실을 분석하고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미국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요, 복음화의 텃밭입니다. 미국인들의 가치관과 우리 핏속에 흐르는 정서로 인한 가치관의 혼돈을 극복하고 우리의 고유한 문화복음화 (문화 토착화)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서와 함께 하는 삶

이 동춘 바오로

현재 본당 성서 묵상회 지도

본당 몇몇 교우들과 매주 토요일에 성서 말씀을 나누어 온 지도 어언 15개 성상이 지났습니다. 참석하는 인원이나 인물들이 자주 바뀌기는 했어도 성서공부라는 계획표와 함께 중단없이 꾸준히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분명 은총이었습니다. 이 기회에 교우분들을 더 초청하는 겸허한 심정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제 나름대로 이 글의 제목을 [성서와 함께 하는 삶]으로 정해 보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비스러운 것이 하느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루가 24: 13-24) 말씀을 나누며 엠마오 여행길에 오르지 않으시렵니까? 처음부터 함께 이 길을 걸으셔도 좋고, 예수님처럼 도중에 끼어들어도 좋으니 언제든지 우리의 여정에 함께 하여 주시기만 한다면 기필코 주님을 만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것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체험했고 증언해 주었지요.

말씀은 고정된 의미에만 갇혀 있지 않습니다. 늘 살아 움직이며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신비로운 생명의 힘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입니다. 분명히 같은 구절인데도 어제와 오늘의 메시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진리가 오늘은 같은 말씀 속에서 고개를 들고 일어섭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지성(知性)

뿐만 아니라 온 마음을 기울여야 그 의미를 터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사에 익숙한 우리에게 오시는 말씀을 대한다는 것은 힘겨운 도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을 세상의 평범한 사물이나 사건으로 바라보듯 일상적으로 대하는 우리는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데 많은 장애들을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깨닫고 이끄는 효과적 방법이 절실한 것입니다.

성경이 단순한 학문적 탐구의 대상이라면 말씀에 접근하고 연구하는 방법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진정 우리를 살게 하는 일용할 양식이며 우리에게 있어야 할 소중한 이상(理想)과 지혜의 빛이기에 애정 어린 마음으로 말씀에 다가가고 이해하고 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 어린 마음이란 무엇보다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을 내 안에서 불러내야 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내 안에서 발굴해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만나게 되는 장애(障礙)들을 노트에 기록하여 본당 신부님이나 성서 해설서나 성경 연구 지도자의 협조를 얻어 소화 시켜나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한 구절 한 구절 터득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성서를 이해하게 되고 애정을 일으키게 됩니다.

차세대 사목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차동엽 신부님의 가톨릭 이야기 [성서는 우리를 변화 시킨다.]란 강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성서 공부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성서를 읽으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 성서를 규칙적으로 읽거나 체계적으로 공부한 사람들의 경험을 모아 보면, 한 마디로 '성서는 사

람을 변화시킨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신앙이 무미건조해서 갈등을 겪던 신자들이 성서를 읽거나 공부를 통해서 신앙을 되살린 신자들을 수 없이 본다. 성서를 자주 읽으면 자신의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바라보는 눈도 바뀌게 된다. 평범한 것들 속에서 기적을 발견하는 혜안(慧眼)으로 말이다.

이렇듯이 성서를 읽으면, 우리의 삶에 여러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 그 효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 '삼가 말씀을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를 얻고 하느님을 믿고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잠언 16: 20) 하느님께서서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가장 행복할지 알고 계신다. 그러기에 하느님 말씀을 따름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다.

2)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인내와 희망을 갖게 해 준다. '우리는 성서에서 인내를 배우고 격려를 받아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서 15: 4) 성서 말씀은 좌절에 처한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 이는 성서 안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곤경을 이겨낸 숭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체험담을 들려주는 증언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말씀의 힘으로 전화위복의 기적을 만났다.

3) 성서 말씀은 우리가 갈 길을 비추어 준다. '당신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을 비추옵니다.' (시편 119: 105)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혼돈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에, 말씀의 빛으로 그것들을 비추어

보자. 옳고 그름이나 우선 순위를 식별하는데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4) 성서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준다.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로마서 10: 17) 무엇보다도 믿음이 쑥쑥 자라나야 하느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한다.